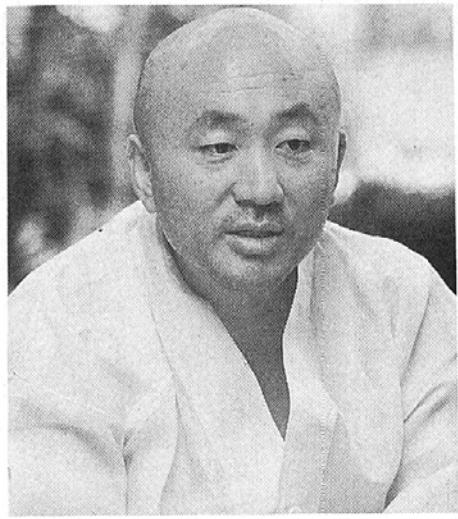


'신행 길라잡이' 어깨 무거워



btn 'TV 신행상담' 진옥스님

“기초교리의 확실한 공부와 생활속에서 실천의지가 올바른 신행의 조건입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입장에서 철저한 정법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TV신행상담'(목 11:10~12:00) 프로에서 6개월간 상담해온 진옥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은 차분한 대답으로 불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불자들이

기초교리에 공부가 갖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대학 등에서 공부를 한 불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속에서

실천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때문에 카메라 앞에 앉으면 신행의 길라잡이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보다 좋은 방송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진옥스님은 “아직 카메라에 익숙치 않지만 상담을 신청하는 불자들이 법당안에 함께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진다”고 말했다. 진옥스님은 TV 신행상담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비행기나 버스로 서울에 와서 다음날 방송을 마치고 내려가는 힘든 일상을 감수하는 등 열의가 높아 제작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진옥스님은 75년 구례 화엄사에서 명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여수MBC 5분 칼럼을 5년간 진행했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가르침 이해에 역점 매주 여수서 상경 '열의' 보여

“1천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 노래에 충실하려고 한 것 뿐입니다.”

8월1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여름정기공연 열을 벌이고 있는 김광석씨는 지난 11일 포크가수로는 처음으로 1천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91년 7월 세실극장에서 첫 라이브 콘서트를 가진 뒤 지금까지 공연관객은 30만명을 웃돌고 있는데 이런 기록이 가

BBS '밤참' 진행 김광석씨 포크가수론 첫 1천회 콘서트 '맑고 향기롭게 운동' 동참 음성공양도

능한 것은 매회공연마다 늘 새로운 것을 주는 무대와 산사의 계곡처럼 서정성 있는 맑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죠. 솔직하게 느끼는 것을 짝막하고 겸손한 대답처럼 그의 음악성은 법정스님이 주신 '원음'이라는 법명과 묘하게 일치한다.

포크시장이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김광석씨의 라이브 콘서트에 몰려드는 팬들을 보면 예외처럼 느껴진다.



원폭희생자 천도영산재 봉행 태고종, 日 나가사키서 내달 19~23일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이 다음달 19~23일까지 5일간 일본 나가사키에서 광복50주년 기념 원폭희생자 천도를 위한 영산재를 봉행한다.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뤄질 이번 영산재에는 박서봉총무원장을 비롯 중진스님, 영산재보존위원회 등 2백여명이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영산재에 이어 21·22일 양일간에 걸쳐 흥복사, 동장사, 오백나한사 등도 참배하게 된다.

이번 천도재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 원폭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BS 추석특집 명절 흥 돋운다"

'한가위만 같아라' '나의 고향이야기' 등 프로 다양

BBS는 올 추석특집으로 고향길 교통소식과 따뜻한 고향의 반가운 손짓을 느끼게 해준다.

추석 당일에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외로움을 함께 나뉘고 더불어 느끼는 행복을 방송하며 명사초대석 '나의 고향이야기'는 그리운 고향과 추석 풍경의 세태를 더듬어 본다.

이와함께 10일에는 생방송 민요콘서트 '너도 나도 노래방'을 방송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의 기쁨을 함께 한다.

"종교프로 시청위해 CATV 가입" 2%

종교프로그램을 시청기 위해 케이블TV를 가입한 시청자는 전체 가입자의 2%이며 이 중 75%가 '비교적 기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지역 50지역에서 10대 후반부터 60대이상 남녀 4백명을 무선편집하여 전화조사방식으로 현황 및 가입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해약의사를 밝힌 기존 가입자들에게 그 이유를 들으면 결과 '불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48.5%대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n '날마다...' 차밍등 코너 확대

btn의 아침정보 생방송 프로그램 '날마다 좋은날'이 제작팀을 새로 만든데 이어 내달 4일부터 코너를 대폭 확대한다.

'날마다 좋은날'(월~금, 10시10분)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축소됨과 함께 기존의 불교전문프로에 생활정보, 법률, 차밍, 패션등의 코너가 신설 확대되며 남자MC가 이정무 아나운서에서 시인 하재봉씨로 교체된다.

btn 특강 공개강연 송석구총장·박완일씨

불교텔레비전은 'btn특강'(목 12:30~13:20) 공개강연을 내달 3일과 7일 12시 30분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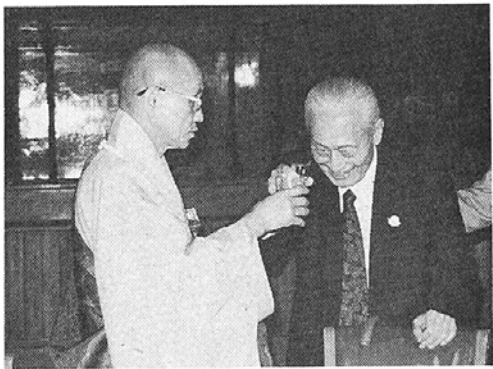
9월 3일에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무너진 윤리의식 불교가 세우야 할 17일'이라는 박완일 전 조계종신도회장이 '비판세상 너넨 마음'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계의 동심

'환희사' 건립불사 추진 룸비니동산 개발일한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네팔 룸비니동산 개발계획에 한국사원 '환희사'의 건립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일화스님을 중심으로 종단협



◇ 지난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중국 불교협회 조 박초회장이 양국불교 발전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

한·중 수교 3년에 본 양국 불교교류

개인·사찰·종단차원 상호교류 다양화 추세

지난 24일로 한국과 중국의 수교 3년을 맞았다.

공식적으로 한·중 양국간 불교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수교 2개월 후인 92년 10월11일~15일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문'의 정신과 관련 19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서의현스님과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회장이 '한·중 불교교류협정서'에 서명을 함으로 본격적인 양국간의 불교교류에 청신호를 비추었다. 이 협정서의 핵심이었던 △인적교류 △교리공동연구 △유학생 파견 △학술교류는 종단협과 중국불교협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던 개인이나 사찰 차원의 교류에 새 활력이 됐다는 점과 지난 5월에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이끌어 낸 시발점이었다는 점등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천태종과 국정사의 종단적 교류, 94년 논문집(선과 동방 문화)을 펴낸 한·중 불교학술교류회의의 학문적교류 외에도 연변지역을 중심으로한 사찰단위의 교류와 동국대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교류도 꾸준하다. (태)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복길 업아' 김혜정씨 출연
김병조의 스타쇼 (30일 11:10~12:00) 불심깊은 성실한 연기자 김혜정. 크게 욕심없이 살아가는 김혜정은 88년 환속사인 황정원과 결혼한 이야기와 농촌의 실상과 혼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자들은 늘어나고...

구화산 지장법사 (2일 12:30~13:20) 신라까지 소문난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제자가 되는 사람이 늘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로 결정하는데...

박희선 박사의 불교인연

나의 삶 나의 불교 (2일 11:10~12:00) 전 서울대학교수인 박희선 박사를 초청하여 중년의 나이에 일본유학을 떠나 만나게된 불교와의 인연 그리고 칠순에 에베레스트를 오른 진정한 신행이야기를 들려준다.

악인 프랭크와 맞선 케인

만행승 케인 (3일 21:05~22:00) 악을 파는 아름다운 테오도라와 품사등인 니보와 만난 케인은 악동한 프랭크와 맞서는데... 니보는 프랭크를 홀로 막으려 하며 테오도라와 서로 섬기는 사랑을 보여준다.

BBS FM 101.5MHz(서울) FM 89.5MHz(부산) FM 89.7MHz(대구)

성열스님과 '아함경' 공부

경전공부 (2일 오전 6시5분~25분) 아함경중 '해탈의 업, 사무람십'에 대해 강남 포교원의 성열스님이 강의.

한국불교의 역사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30일 11:05~11:20) 한국교원대 김상현 교수가 출연하여 '한국불교의 역사'에 관하여 강의를 한다.

'무상'의 의미 집중 조명

교리강좌 (31일 오전 6시40분~7시) 부처님 최후의 말씀, '살은 무상하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를 들어보는 시간.

박영동 법사 진로상담

언제나 푸른불교 (1일 14:10~15:00) 박영동법사가 출연하여 젊은 불자들의 진로고민을 상담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효의 본찰 용주사에 모셔진 성보!! 부처님께서 설하신 효의 경전

佛說大報 부모은중경 병풍

효행과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조상님의 은덕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 효심을 깨우치게 하는 살아있는 인륜대도병풍

● 작품내용 : 불설대보 부모은중경(수원 용주사 목판본)

- 회담수호은(懷敬守護恩): 임태고서 지켜주신 은혜
- 임산수고은(臨產受苦恩): 해산하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 생자양육은(生子養育恩):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 인고토람은(咽苦吐甘恩):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주신 은혜
- 회건취습은(迴乾就濕恩):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내어 주신 은혜
-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젖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 주신 은혜
- 원행억념은(圓行憶念恩): 멀리 길을 떠난 자식을 걱정해 주신 은혜
- 위조약업은(爲造藥業恩): 자식을 위해서 모진 일도 서슴치 않으신 은혜
- 구경민인은(究竟憐愍恩): 최후까지 자식을 연민히 여기시는 은혜

■ 작품 (전면) 방적공단 金字書畫 (후면) 송원거사 친필만아성경
■ 규격 (높이) 5자 8치 (폭) 14자 고급스기묵 7첩배첩(10쪽)
■ 추석특가 ₩ 48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구입 문의: 기획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콜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자비의 마을 대자원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일 이야기말로 최고의 자비행으로 지체 장애인·고아·무연고 노인(연고가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노인분도 가능)·미혼모 자활을 도와고자 하오니 입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 곳 : 경상남도 거제시 사동면 오랑리 산 74-3번지
■ 전화 : (0558) 32-7221~3 / 팩스 : (0558) 32-7224
벽담사 (부설) 대 자 원

■ 참고 : 상기의 장소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시설은 현재 약 3,0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건물 3동(약 200평) 현대식 화장실, 대충탕, 휴게실, 대충식당 등 2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음

* 운영 경비는 본 벽담사 신도회(약 3,000세대) 및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음.